

모래상자놀이를 통한 반응성 애착장애유아의 사회성발달과 놀이발달에 관한 사례연구

김미경(金美景)*

논문 요약

본 연구는 반응성애착 장애유아가 모래상자놀이를 통해 내부의 심리적 문제를 어떻게 표현하고, 해결해나가는지, 사회성은 어떻게 발달하는지, 놀이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에 대한 실천 사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결과 반응성애착장애유아에게 모래상자놀이치료를 병행한 통합교육이 사회성발달과 놀이의 유형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으며 특히 놀이의 유형에서는 극화놀이에 효과가 있었으며 공격적인 행동으로 친밀감을 나타내던 유아의 공격성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래상자놀이는 놀이, 상상력, 공상의 요구를 일깨우며 인간의 영혼, 마음, 지적능력, 신체를 함께 표현하도록 하는 특성이 있어서 반응성애착 장애유아의 전 존재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주요어 : 모래상자놀이, 반응성애착장애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놀이는 소망과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적극적 활동이며 누구

* 충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나 언제든지 하고 싶은 것을 외부의 간섭 없이 마음대로 해보는 즐거운 활동이다(Crow & Crow, 1966). 김광웅(2001)은 놀이를 유아가 가장 즐기는 활동, 자발적 활동, 반복적이고 탐구적이며 창의적인 활동이라고 하였으며 놀이에는 다양한 경험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정금자(1999)도 놀이를 내적으로 동기 유발되어 발생하는 비형식적이고 상징적인 활동으로 외적인 규제 없이 자율적으로 수행되며 현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자유로운 마음에 의해 지배되고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놀이는 단순한 활동의 형태가 아니라 유아가 세계를 파악하려는 노력이며 안정감을 얻으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고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정서적 좌절이나 갈등을 해소하는 수단이다. 특히 정서, 인지, 그리고 언어발달장애아는 자신들의 생각과 느낌들이 현실에서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과정을 거치면서 압축, 왜곡되며, 단일차원(linear time-bound)의 단편으로 분열되어 버리므로 언어적 표현에 의존하는 치료는 심리내적 현실의 엄청난 양과 복잡성을 온전하게 담아낼 수 가 없다(노치현, 황영희, 1998)고 한다. 그러므로 놀이를 이용한 치료기법들 가운데 교사가 기초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장애유아를 위한 지도에 적용할 수 있는 모래상자놀이치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Carmichael, 1994). 이는 최근 심리치료 기술을 교육받은 유치원 교사가 치료를 행하는 kinder therapy(강정원, 2002)가 새로운 놀이치료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된 것과 무관하지는 않다(김광웅, 1998).

모래상자놀이는 의식적, 언어적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Marievaz Kim, 2000; Allan, 1988). 모래상자놀이는 모래상자 안에서의 창조에 기본을 둔 치료기법으로(Ammann, 1991) 유아뿐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놀이치료 기법이다(Oaklander, 1988; Patricia, 1999). 인간은 모래상자놀이를 통해 자신의 무의식중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의식으로 끌어올림으로서 통합되어가고, 이로써 인간은 온전한 인간으로 본래의 자기의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 실현하는 개성화 과정을 거치게 되며(김보애, 2004) 인간의 영혼, 마음, 지적능력, 신체를 함께 표현함으로써 유아의 전 존재가 온전히 드러나게 해준다(노치현, 황영희, 1998).

모래는 물과 비교해보면 고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젖은 모래, 마른 모래의 촉감이 다를 뿐 아니라(이숙재, 1998)유아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Taylor, 1980), 언어발달(노치현, 황영희, 1998), 정서발달(Taylor, 1980), 사회성발달(Baker, 1996), 신체발달(조희순, 1993), 내적 심리적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정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래상자와 함께 제공되는 작은 모형소품들은 교사의 관찰과 유아의 내부 사이를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한다(De Domenico, 1988)고 할 수 있다. Allan과 Berry(1987)도 모래를 과정, 모래상자를 매개체, 그리고 실제세계를 결과로 기술하였다. 모래상자놀이의 과정은 교사가 모래상자에 축소된

세계를 건설하도록 유아를 초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유아가 모형 놀잇감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 교사는 유아의 내적인 상징체계를 어렵듯이 알아채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모래상자놀이는 언어적 표현이 어려운 장애유아들에게 적합하다(Carmichael, 1994; Kalff, 1966).

특히 반응성애착 장애(Reactive Attachment Disorder: RAD)는 5세 이전에 나타나며 대부분의 상황들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 유아로써 애착 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명희, 1999). 이런 장애를 나타내는 유아는 타인의 접촉을 두려워하고 몸을 움츠리는 것과 같은 위축된 반응 및 회피하는 양상을 나타내거나 낯선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나 공격적인 행동과 같은 부적절한 친밀감을 나타내기도 한다(권석만, 2005). 이춘재와 그의 동료들(이춘재 외 역, 2004)은 돌보는 사람이 소홀히 한다든지 번번이 바뀌는 것이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반응성애착 장애 유아들은 또래와의 상호교류에 흥미를 보이나 사회적 놀이는 부정적인 정서 반응으로 인해 저해가 된다(myhome.shinbiro.com).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모래상자놀이를 적용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는 부적응유아나 알코올 중독자 자녀, 발달지체아,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응 행동,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놀이참여, 공격성, 대인관계, 그리고 의사소통에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곽희숙, 2003; 소경란, 2002; 한유미, 안선희, 채영순, 2001; 양현주, 2003; 배영란, 2003; 박용옥, 2002; 염숙경, 2000; 정재권, 이민형, 2002). 그러나 후천적인 양육의 결핍에서 비롯된 새로운 사회병이라고 할 수 있는 반응성애착 장애유아를 대상으로 통합교실 내에서 유치원교육과정 중심의 진단평가를 통한 모래상자놀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반응성애착 장애유아가 또래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공격성이나 부적절한 대인관계 기술이 긍정적으로 표현이 되도록 교정되어야 하며, 다른 유아뿐 아니라 스스로 조차도 노는 방법을 모르므로 놀이가 발달되도록 모래상자놀이를 통한 교육적 중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반응성애착 장애유아가 모래상자놀이를 통해 내부의 심리적 문제를 어떻게 표현하고, 해결해나가는지, 사회성은 어떻게 발달하는지, 놀이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에 대한 실천 사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모래상자놀이를 반응성애착 장애유아의 지도방법의 하나로 제시함으로써 장애유아 통합교육기관에서 유치원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둔다.

2. 연구동향 분석

Kalff(1966)는 모래상자놀이는 신체를 표현하는 은유적 요소로서 신체의 어느 부위가 아프

다면 그 부분의 신체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유적으로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Amatruda(1998)은 모래놀이과정을 통해 내면을 통찰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으며 Bradway(1997)는 모래상자놀이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은 “나는 왜 이것을 만들었는지 모른다.” 또는 “내가 왜 이것을 문었는지 모른다.” 라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는 모래상자놀이가 내면세계에 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하였다. 모래상자놀이의 효과에 대해 연구한 많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곽희숙(2003)은 정서·행동장애 특성을 보이는 유아에 대한 모래상자놀이 적용 사례연구에서 모래상자놀이는 정서·행동장애 특성 중 불안과 위축으로 인한 정서·행동장애를 보이는 유아가 정서적인 면에서 또래와 교사에 대한 감정 표현이 자연스러워지고 두려움이나 불안을 보이던 행동의 출현이 현저히 줄게 되어 유치원 생활의 적응을 돕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서 부적응이 외면화되어 표출되는 행동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놀이의 실시 기간을 장기간으로 계획하여 모래상자놀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희(2002)도 분리불안형 등교거부아의 치료방법과 증상유발요인에 대한 검토를 통해 모래상자놀이치료 접근을 이용한 결과 모래상자놀이를 통해 불안을 표출하였으며 불안표출로 인해 정서적 안정을 이루었으며, 혼자서 등교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분리불안형 등교거부아의 내재적인 힘이라고 밝혔다.

소경란(2002)은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유아에 대한 모래상자놀이 적용 사례연구에서 모래상자놀이는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을 보이는 유아를 돕는다고 하였다. 이 때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의 유형에 따라 그 효과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모래상자놀이는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아동 중 주의력 결핍 우세형의 유아에게 과잉행동-충동 우세형의 유아보다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양현주(2003)는 모래놀이에서 소품 및 물의 제공이 유아의 놀이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모래에 소품 및 물이 제공되었을 때 모래놀이의 참여도뿐 아니라 인지·사회적 놀이가 증가하였으며 유아들 사이의 갈등이나 비놀이 행동의 발생률은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도 모래놀이치료를 통하여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상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져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배영란, 2003)고 하였다. 한유미, 안선희, 채영순(2001)도 반항성장애유아와 분리불안장애유아에게 모래상자 놀이치료를 실시한 결과 두 사례가 치료과정과 속도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공격성과 대인관계 기술에서 모두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나 유아교육현장에 모래상자 놀이치료의 적용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박용옥(2002)은 모래놀이가 유치원에 통합된 발달지체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유치원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발달지체 유아는 인지적 특징이나 성격에서 차이를 보이고

교사선호행동의 향상 정도도 다르게 나타나나 통합교육환경에서 이들 유아에게 실시된 모래 놀이는 교사뿐 아니라 또래가 선호하는 유아의 사회적 행동, 사회적 능력과 유치원 적응력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보애(2004)도 부모로부터 방임되어온 청소년에 대한 사례로 폭력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청소년에게 총 20회의 모래놀이치료로 개입한 과정을 다루었으며 피학대 청소년은 또래들 사이에서 리더역할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치료를 받으면서 점차적으로 집단에 적응하고 안정되어가는 모습을 보였으며 새롭게 출발하고자하는 의지를 보이는 변화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염숙경(2000)은 모래상자놀이는 자유로운 공간에서 유아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창의적 활동이며 특별한 기술 없이도 놀이세계에 들어가도록 할뿐 아니라 자아의식을 강화시켜 자기 이미지와 신뢰감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우종태(1997)는 간질로 인해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초등학교생의 놀이치료를 모래상자 중심으로 경험적인 의미를 고찰한 결과 치료적인 관계를 가지는 공간이나 매체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모래상자의 틀의 파괴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과 치료적인 환경을 위협하지 않고 그들의 그러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를 모래상자가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래상자의 틀은 무질서의 세계에 어떤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현저한 자아기능장애를 수반하는 분열증 환자뿐 아니라 대부분의 심리적인 부적응을 나타내는 사람에게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재권과 이민형(2002)은 모래상자놀이가 발달장애 아동의 자아개념과 대인관계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이상 살피본 바와 같이 모래상자놀이는 모래상자 안에 창조된 세계를 통해 만지고, 보고, 생각하고, 토의하고, 경험하고, 사진 찍을 수 있는 물리적 창조물이 되어줌으로써 장애아 뿐 아니라 사회 부적응아의 치료에 새로운 차원을 열어준다. 또한 불일치하는 생각과 느낌, 상상 또는 명확하지 않은 이미지와 의식의 흐름을 물리적으로 창조하며 변형시킬 수 있게 한다.

II.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1. 연구내용과 범위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반응성애착 장애유아가 모래상자놀이를 통해 내부의 심리적 문제를 어떻게 표현하고, 해해나가는지, 사회성은 어떻게 발달하는지 알아본다.
- (2) 놀이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에 대한 실천사례를 알아본다.

- (3) 장애유아 통합교육기관에서 유치원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한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가. 대상유아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C 대학교 부속유치원에 재원 중인 반응성애착 장애를 지닌 통합유아 1명이다. 이 유아는 친구를 무는 부적절한 대인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타인의 접촉을 두려워하여 깨물거나 회피하는 등 부정적인 친밀감을 보인다. 대상유아의 구체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이름 : 김철민(가명)
- 성별 : 남
- 생년월일 : 1998. 3. 14.
- 장애명 : 반응성애착 장애
- 가족관계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부, 모, 누나, 철민이 4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구체적인 가족관계는 <표 1>과 같다.

<표 1> 가족관계

관계	성명	성별	연령	학력(전공)	직업	근무처
부	김정철	남	39	한의대졸	한의사	허준 한의원
모	박연정	여	39	대학원 졸		
누나	김민지	여	10	00초교 3		

나. 전반적 발달 상태 및 교육방향

철민이의 전반적 발달상태와 교육방향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전반적 발달상태 및 교육방향

	전반적 발달 상태						
	언어		사회성	인지	신체	기본생활습관	표현
	수용	표현					
부모 및 타기 관 의견	·손주 세요, 밥주 세요, 같이 먹자등 간단한 지시나 제안에 따름. ·질문을 이해하지 못함.	·‘미마미마’, ‘아오아오’ 같은 무의미한 언어를 사용하며 의미 없이 웃음. ·언어표현 유도하면 땀. 요구하는 것을 단어로 표현.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놀이를 함. ·독립적으로 놀이를 하기도 함. ·친구를 인식하고 놀이를 함. ·옆 친구가 밀어도 공격하려는 것으로 생각해서 무는 행동을 함.	·가위사용 가능함. ·놀이감 선택해서 상담자 앞에 마주보고 앉아 상호작용함. ·점을 찍어주면 연결해서 도형 완성함.	·산만하게 움직임. ·대집단 활동시 착석이 점점 잘됨. ·장이나 책상위에 올라감. ·편식이 줄어들긴 하였으나 여전히 있음.	·재미 있는 동작과 처음 해보는 동작은 모방이 가능함. ·음악에 매우 관심이 있어 피아노를 시작.	
교사 관찰	·교사의 부름과 요구를 잘 알아 듣고 행동함. 그러나 웃음이 폭발하였을 경우에는 듣지 않음. ·교구놀이지 교사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나 원하지 않으면 활동을 하지 않음.	·단어 표현의 유도 시간이 예전보다 짧아졌음. 아직 자발어 출현은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외에는 없음. ·인사를 유도할 경우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인사말만함. ·6월 이후 간단한 단어 출현.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놀이함. ·대집단 시간에 옆 친구가 귀찮게 하면 바로 물어버림. ·웃음이 폭발했을 때 돌아다니면서 친구를 밀고 다니는 경우 있음. ·바깥놀이에서 대근육을 이용하여 놀이기구를 잘 사용함.	·피아노등 악기에 관심이 많음. ·수 조작 영역에서 모양에 맞는 블록 끼우기를 2~3개 정도 함. ·퍼즐 5조각 맞추 수 있음. ·연필 종류 잡는 것에 서투름. ·숫자 1,2,3을 씀.	·신체를 이용한 대집단 게임할 경우 교사와 함께 유도된 내용대로 게임할 수 있음. ·신체활동시 스스로 참여할 수 없고 항상 다른 곳에서 돌아다니려고 함. ·바깥놀이 시간에 친구가 있는 곳에서 놀이함.	·스스로 정리정돈 잘함. ·유도아래 옷 벗을 수 있음. ·평하지 않아 있는 행동은 사라졌으나 놀이에 대한 집중도와 착석이 약해져서 자주 일어나서 계속 돌아다니려고 하는 경우 있음. ·실내화를 신지 않고 벗으려고 함. ·물장난 치는 것이 사라짐. ·간식 중 편식을 하는 것이 남아있음(5월 이후 밥 종류는 먹지 않음, 생선과 주스만 먹음) ·유도아래 인사 가능.	·유도에 의해 울동 따라 하기 가능 ·그림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음(II 적거리기단계). ·악기 사용에 많은 관심을 보임.
통합 교육 방향	·언어- 아침 등원 시 인사하기. 원하는 것에 대해 단어를 자발어로 이야기하기, 색깔이름과 사물명사를 물으면 무엇인지 대답하기. ·사회성- 친구의 물음에 응하기, 스스로 짝과 함께 즐기기, 친구 물지 않기. ·인지- 연필 잡는 법, 자유선택놀이지간에 스스로 착석해서 활동하기 ·신체- 체조활동이나 신체표현 활동에 참여하기 ·기본생활습관- 신발 벗기 말고 신고 지내기, 스스로 빠른 시간 안에 실내화를 신고 벗기, 편식하지 않기 ·표현- 사람 그리기, 노래 부르기 ·문제행동- 웃는 행동, 책상이나 교구장 위에 올라가는 행동, 착석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행동, 편식, 친구 무는 행동 ·선택활동시 모래상자놀이하기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도구로는 AEPS(Assessment, Evaluation, and Programming System for Infants and Children)의 사회성발달도구, Frost의 놀이관찰 척도검사, 그리고 모래상자놀이그림 분석을 위한 기록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AEPS 검사

AEPS검사는 반응성애착 장애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평가하는데 사용하였다. AEPS의 검사 도구는 이영철과 그의 동료들(2005)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 도구는 0-3세와 3-6세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유아의 사회성발달 사정을 통해 0-3세 용을 사용하였다.

나. Frost의 놀이관찰 척도

놀이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Frost(1992)가 제시한 놀이행동 분류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놀이는 혼자놀이, 병행놀이, 집단놀이로 인지적 놀이는 기능놀이, 구성놀이, 극화놀이, 규칙이 있는 게임으로 비놀이행동은 비참여행동, 관찰자 행동, 전이, 공격적 행동, 기타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모래상자그림 기록

반응성애착 장애유아의 모래상자놀이의 그림을 분석하기 위해 매회 디지털카메라로 찍고 분석하였다.

라. 교사 훈련

모래상자놀이의 실시방법과 모래상자 만드는 법, 모형 도구 등에 대한 설명과,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검사도구의 사용방법에 대해 훈련을 실시하였다.

마. 모래상자 제작

모래상자의 규격은 57x72x7cm로 하였으며 Kalff가 제시한 모형소품을 구입하여 처음에는 바구니에 담아주었으나 점차적으로 Kalff의 방식대로 5층으로 된 선반은 아니지만 낮은 3단 선반에 진열하여 제공하였다.

바. 모형 놀잇감

본 연구에서는 Kalff가 제시한 사람, 종교, 동물, 식물, 탈것, 건물 및 시설물, 방어물 및 표지판, 가구 및 일상용품, 가공의 인물들, 자연물, 무기, 기타의 모형소품을 제공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총 5회에 걸쳐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다.

가. 실시 방법

모래상자놀이가 반응성애착 장애유아의 사회성발달, 놀이유형, 그리고 유치원 적응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005년 4월 8일부터 7월20일, 그리고 2005년 9월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27 주간, 주 5회 5기에 걸쳐 총 135회를 실시하며, 한 회기 당 시간은 매일 5-15분으로 이루어졌다. 자발적인 모래상자놀이가 끝난 후에는 자연스럽게 자유선택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나. 1회 검사

1회는 프로그램에 모래상자놀이를 계획하기 위한 사전검사로 이루어진다. 사전검사는 유아의 학급 담당교사 2명이 반응성애착 장애유아의 사회성발달을 알아보기 위해 AEPS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며, 놀이유형은 Frost의 놀이관찰 척도에 따라 관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자간 신뢰도를 알아보았다. 검사자간 신뢰도는 .87-.92($P<.001$)였다.

다. 2, 3, 4, 5회 검사

반응성애착 장애유아의 진행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2회 검사를 1회 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모래상자놀이를 실시한 3주후에 그리고 3회 검사는 11주 후 실시하였다. 4회 검사는 21주 후, 5회 검사는 27주 후에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모래상자놀이와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진단하여 수정·보완·확장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총 5회에 걸쳐 실시한 AEPS검사결과, 모래상자 놀이과정을 기록한 관찰일지, 매회 모래상자놀이 결과물을 기록한 사진, 놀이유형관찰 결과, 유치원프로그램 활동참여, 적응 행동기록, 평가기록 등이었다. 그리고 학급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유아의 일반적 배경에 대한 자료, 연간계획안, 주간 및 일일계획안, 하루일과표와 같은 문서를 수집하였다. 이 자료들은 3-5회 반복하여 검토를 하여 각 결과들을 서로 연결하여 평가하였다. 해석에 대한 부분은 철민이의 담임교사와 부담임 교사 2인과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며 모래상자놀이와 놀이 활동참여에 관한 해석을 내렸다. AEPS 검사 도구에 의한 사회성발달은 대상유아가 하위내용을 어느 정도 수행하는지 발생수준의 빈도에 따라 점수에 쓰인 1점과 2점을 더하여 영역에 대한 원점수를 산출 한 후 영역의 백분율을 계산하기 위해

서 영역 전체 원점수를 영역 원점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였다. 그리고 모래상자놀이의 실시로 인해 반응성애착 장애유아의 사회성발달과 놀이유형, 참여활동, 적응력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발달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5회 검사의 점수를 프로파일화 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반응성애착 장애유아의 모래상자놀이의 특성은 어떠한가?



모래상자놀이치료법의 큰 특징은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드는 사람에게 해석을 주지는 않는다. 또한 질문도 하지 않으며 하나하나의 작품 분석보다 전체의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작품 전체의 흐름을 구조분석, 내용분석, 역동적 분석, 그리고 조합적분석의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구조분석에서는 사용된 모형의 수나 종류, 색깔과 형태, 사용공간의 좁기와 넓이를, 내용분석에서는 작품의 테마를, 역동적 분석에서는 다이나믹한 아나리스트 모래상자작품에 장애유아가 가지고 있는 증상이나 생활과의 관련을, 그리고 종합적 분석에서는 계열적, 시리즈적인 테마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1) 모래상자놀이 관찰기록 및 분석

관찰기록 및 분석	모래상자를 꺼내주자 팔을 걷고 모래를 두 손으로 꼭꼭 누르고 모래를 파는 활동함. 모래를 만져보고 스푼으로 퍼서 부어보는 활동하는 등 모래에 대한 탐색만 이루어졌다.
활동사진	

<p>관찰기록 및 분석</p>	<p>바구니에 있는 장난감들에는 전혀 관심 보이지 않았으며 모래상자를 들여다보다가 모래놀이 상자 안으로 들어갔다. 이러한 행동이 5일간 계속되었다.</p>
<p>발달영역</p>	
<p>관찰기록 및 분석</p>	<p>바구니 전체를 상자 안으로 밀어뜨림. 허공을 바라보며 모래를 만짐. 모래를 스푼에 담아 손가락으로 꺾꺾 누르는 활동을 함. 상자 속에 들어가 있는 바구니에서 장난감 미니어처들을 하나씩 꺼내어 모래 속에 묻음. 모래를 손으로 퍼서 손 등에 붓는 활동 계속함. 놀이 시간이 다른 날보다 길어졌다.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던 모형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작품의 테마나 공간 활용 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동물과 나무들을 묻는 행동이 나타났다. 동물과 나무, 블록 등 모든 물체가 파묻혀 있거나 넘어져 있다. 반응성애착장애유아 철민이는 작은 모형이 놓여있는 선반위에서 놀이를 하며 장면을 만들지 않았으며 작은 모형 몇 개만을 선택하여 모래 속에 파묻는 행동이 나타났다. 모래에 파묻으므로 모형들을 자신의 본능적 측면과 연결해서 사용하였다. 갈등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고 오히려 내부로 향하게 하고 있다. 즉 내부의 본능상태를 표현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Allan과 Berry(1987)가 밝힌 대로 철민이가 세계를 만들지 않고 모래만 탐색하는 것은 정서적 혼돈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p>
<p>활동사진</p>	
<p>관찰기록 및 분석</p>	<p>장난감 바구니에서 플라스틱 스푼을 꺼내어 모래를 담아 쏟아내는 과정 반복함. 플라스틱 스푼에 모래를 담고 그 속에 나무 미니어처를 넣고 꺾꺾 누름. 모래를 손으로 퍼서 눈사람을 만들 듯 뭉치다가 모래상자 바깥으로 퍼냄. 모래상자를 넘어 과격행동을 표출하므로 모래상자놀이를 중단시켰다. 자아경계의 혼돈이 나타나고 있다.</p>
<p>활동사진</p>	

<p>관찰기록 및 분석</p>	<p>장난감 엄마모형뿐 아니라 다른 인물 모형소품과 동물 소품 등을 하나씩 집어 모래 속에 넣고 꺾꺾 누름. H자 블록에 모래를 담아 손바닥 위에 뿌리는 활동함. 플라스틱 스푼에 모래를 담아 장난감 미니어처들 위에 뿌림. H자 블록 두개를 들고 맞부딪혀 소리 나도록 함. 사람 인형과 동물 인형을 들고 만지고 돌리다가 모래 위에 다시 던져 넣음.</p>
<p>활동사진</p>	
<p>관찰기록 및 분석</p>	<p>자유놀이를 하다가 모빌렉 뒤의 모래상자가 있는 곳으로 가면서 교사를 쳐다봄. 교사가 다가가자 모빌렉 안에서 나옴. 모래상자를 꺼내주자 따라와 놀이하려고 준비함. 모래를 퍼서 손등에 붓는 활동 계속함. 나무 미니어처와 H자 블록 두 개를 꺼내어 상자에 집어넣음. H자 블록 두 개를 맞부딪혀 소리 내는 활동 반복함. 기린 미니어처를 꺼내어 플라스틱 스푼 속에 집어넣은 후 다른 동물인형과 함께 모래 속에 파묻음.</p>
<p>활동사진</p>	
<p>관찰기록 및 분석</p>	<p>플라스틱 스푼에 모래를 퍼서 손등과 바닥에 붓는 활동 수차례 함. 브리지를 상자 안에 놓고 사람(엄마, 판다) 인형을 브리지 위에 눕히고 그 위에 모래를 뿌리는 활동함. 엄마 인형을 상자 윗대에 멈춰 세운 후 허공을 바라봄. 스푼으로 모래를 퍼서 인형들 위에 붓는 활동 계속함. 처음으로 모형틀을 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의식의 흐름을 상징하는 다리를 놓고 엄마인형을 모래상자 테두리에 올려놓으며 자아의 경계에 혼란을 겪다가 점차적으로 다리위에 올려놓았다. 그런 후 모래를 부어 엄마인형을 묻으려고 모래를 엄마인형위에 붓기 시작하였다. 그리고는 삼을 엄마인형위에 올려놓고 놀이를 중단하였다. 공간의 활용은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무의식과 의식세계에서의 혼란을 나타내고 있으며 엄마인형을 처음에는 상자테두리에 놓은 것도 자아경계의 혼란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p>
<p>활동사진</p>	

<p>관찰기록 및 분석</p>	<p>자유놀이를 시작하면서 모래상자를 꺼내둠. 교사가 유도하지 않았는데 모래상자로 가서 혼자 놀이 시작함. 모래를 두 손으로 꼭꼭 누름. 모래를 손으로 퍼서 손가락 사이로 빠져가는 것 보며 웃음. 모래를 손으로 퍼서 왼손 등에 퍼붓는 활동 계속함. 얼굴 표정이 밝아지면서 많이 웃음. 캥거루 미니어처를 집어 들어 꼬리를 잡고 모래 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는 활동 반복함. 다리의 위치가 위에 있으면서도 좌로 치우쳐있으며 여전히 과거지향적인 면을 보이나 의식적인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던 동물을 놀이에 사용하였다.</p>
<p>활동사진</p>	
<p>관찰기록 및 분석</p>	<p>모래놀이상자로 유도하자 커다란 기린, 코끼리 인형을 양손으로 잡고 모래 위에 상체의 무게를 실어 짓누름. 다섯 차례 정도 반복 후 허공을 바라봄. 작품을 보면 처음보다 사용된 모형의 수가 많아졌으며 사용공간도 넓게 활용을 하였다. 동물이 캥거루에서 코끼리로 바뀌었으며 다리의 위치는 위에 놓여져 있으며 좌측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리의 방향이 좌로 향하고 있어 퇴행적이고 소극적이며 과거지향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으나 의식적인 부분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코끼리가 서있지 않고 넘어져있으며 침묵 속에 침몰된 가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p>
<p>활동사진</p>	

<p>관찰기록 및 분석</p>	<p>수. 조작영역에서 도미노 놀이를 하고 있는 철민이를 모래놀이 영역으로 유도함. 선반에서 기린 인형을 꺼냄. 적목 인형을 꺼내어 모래 위에 꽂아주자, 다른 적목 인형들을 꺼내어 모래 위에 드문드문 꽂아놓음. 동물 인형들을 꺼내어 만지다가 손을 모래 속에 넣고 다른 한 손으로 꺾꺾 누름. 옆에 있는 교사를 한 번 보고 다시 모래 속에 집어넣은 손을 누른다. 기린, 코끼리, 나무 등의 모형들이 위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의 공간을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모형의 색깔도 붉은색이 적어지고 초록색, 노란색, 회색, 고등색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러 동물들이 나타나면서 지금까지는 전혀 테마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테마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아발달단계를 보면 ① 동. 식물단계 ②투쟁단계 ③집단적응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자아발달단계의 초기단계의 시작으로 나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모래그림들이 생명이 없는 침체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여전히 유아의 정서적 혼란(emotional turmoil)과 혼돈(chaos)을 반영하는 작품을 꾸미고 있다(노치현, 황영희, 1998, 재인용)에 의하면 침체(Stasis)란 움직임이 느린 상태를 의미한다.</p>
<p>활동사진</p>	

2. 반응성애착 장애유아의 모래상자놀이를 통한 사회성 발달의 경향은 어떠한가?

반응성애착 장애유아의 입장에서 27주간 총 135회 동안 모래놀이상자치료에 참여한 결과 사회성 발달이 어떻게 증진되는지를 AEPS평가영역 가운데 사회성발달평가 검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표 3> 사회성발달 영역의 총 점수

검사횟수	1회	2회	3회	4회	5회
검사날짜	4/29	6/30	7/20	10/17	11/28
원점수	14	19	22	26	36
백분율	28	38	44	52	72

<표 4> 사회성발달 영역별 점수

검사횟수	1회			2회			3회			4회			5회		
영역	가	나	다	가	나	다	가	나	다	가	나	다	가	나	다
원점수	8	4	2	10	5	4	11	6	5	10	6	10	17	8	11
백분율	16	8	4	20	10	8	22	12	10	20	12	20	34	16	22

가: 친숙한 어른과 상호작용

나: 환경과 상호작용

다: 또래와 상호작용

사회성발달은 <표3>과 <표4>에 제시한 것처럼 전체점수는 1회에는 14점에서 5회에는 36점으로 22점이 향상되었으며 영역별로는 친숙한 어른과 상호작용하기는 8점에서 17점으로 9점, 환경과 상호작용하기는 4점에서 8점으로 4점, 그리고 또래와 상호작용은 2점에서 11점으로 9점이 향상되었다.

3. 반응성애착 장애유아의 모래상자놀이를 통한 놀이유형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반응성애착 장애유아의 모래상자놀이치료와 유치원활동을 통해 놀이유형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Frost의 행동관찰 척도를 사용하여 알아보았다.

관찰일시 : 2005년 3월 ~ 4월

사회놀이 인지놀이	혼자놀이	병행놀이	집단놀이
기능놀이	· 조형 - 연필 잡으려고 하지 않다가 연필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난화기형태의 그림이 나타남.	나타나지 않음	나타나지 않음
구성놀이	· 플라스틱류의 블록에 관심을 보임. 교사가 쌓기 등의 시범을 보이면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 모방하여 따라 하기도 함. 병렬하여 쌓기 가능. 도미노 영역을 유도하여 관심 갖게 함. 스스로 놀이를 전개하지는 않음. · 바깥놀이 - 배회하며 계속 돌아다님.	나타나지 않음	나타나지 않음
극화놀이	· 역할놀이집을 좋아함. 전화기와 아기인형에 관심을 보임. 아기에게 우유병을 물리는 행동을 보임. · 모래놀이 - 미니어처 이용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모래를 손으로 만짐.	나타나지 않음	나타나지 않음
규칙있는 게임	· 교구놀이 -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음. · 집단게임 - 착석이 힘들고 교사의 유도아래 참여할 때와 하지 않을 때 있음.	나타나지 않음	나타나지 않음

비놀이

비참여행동	관찰자 행동	전이	공격적 행동	기타
· 이야기 나누기시 교실을 많이 배회함.	· 멍하니 허공을 응시할 경우 많음.	· 대집단시 착석시간이 길어지면 무의미한 웃음 많이 보임.	· 공격적 행동은 아나나 옆에 앉은 친구를 방해함.	· 장위에 올라가는 행동

관찰일시 : 2005년 10~11월

사회놀이 인지놀이	혼자놀이	병행놀이	집단놀이
기능놀이	· 조형 - 신문지를 가위로 자르는 활동을 매우 좋아함. 연필 사용도 잘함. · 음률 - 핸드벨에 매우 관심을 보임.	나타나지 않음	나타나지 않음
구성놀이	· 쌓기 영역에서 스스로 앉아 놀이하기도 하고 도미노 놀이를 스스로 꺼내어 놀이하고 정리함. 다양한 모양의 구성이 나오지 않음.	나타나지 않음	나타나지 않음
극화놀이	· 역할놀이영역에서 관심 있는 놀이감을 만지며 놀이함. 특정 친구를 따라다니며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보이기도 함. · 모래상자놀이 - 모래상자놀이에서 여자사람 모형을 꺼내어 모래놀이를 전개함.	가끔 나타남	나타나지 않음
규칙있는 게임	· 교구놀이 - 규칙 있는 게임을 이해하지는 못하나 교사의 유도아래 비장애 유아들과 함께 놀이 할 수 있음. · 집단게임 - 친구들의 게임내용을 보며 모방하여 활동함. 착석이 많이 좋아짐. · 코코코 게임을 교사에게 하자고 함	나타나지 않음	나타나지 않음

비놀이

비참여행동	관찰자 행동	전이	공격적 행동	기타
· 크리스마스 행사 핸드벨 연주와 율동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함.	· 좋아하는 특정 친구에게 관심을 보이고 따라다님.	· 아침 등원 시 뛰어들어 오나 자리에 잘 착석함. · 활동으로의 전이에 안정적으로 참여함.	· 공격적인 행동이 거의 사라짐.	· 악기놀이에 많은 관심을 보임.

놀이의 형태에 많은 변화는 보이지 않고 여전히 혼자놀이를 하고 있으나 친구들의 반응이나 말을 의식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변화를 보였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대로 공격성이 증가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외현적인 행동은 부정적인 면으로 나타났지만 또래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과 속상한 일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는 감정 표출은 자아발달을 위해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0월 이후부터는 역할놀이 영역에 관심을 보이며 특정 친구를 따라다니면서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병행놀이 형

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유치원의 일과에 안정감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공격적인 행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글쓰기에 관심을 보이며 교사의 말을 모방하여 표현성 언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반응성애착 장애유아가 모래상자놀이를 통해 내부의 심리적 문제를 어떻게 표현하고, 해결해나가는지, 사회성은 어떻게 발달해 나가는지, 그리고 놀이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를 실천 사례를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C 대학부속 유치원에 재원 중인 반응성애착 장애를 지닌 통합유아 1명을 대상으로 모래상자놀이를 통해 사회성과 놀이 형태가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관찰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래상자놀이의 그림을 분석한 결과 반응성애착장애유아인 철민이는 초기단계에서는 모래상자놀이를 접하고는 놀이감을 활용하여 모래그림을 그리기 보다는 자기 자신이 모래 상자 안으로 들어가는 행동을 하였다. 철민이는 이러한 행동을 5일 동안 반복적으로 하다가, 그 이후에는 모래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허공을 쳐다보며 무의미하게 모래만 만지거나 손 등에 뿌리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중간단계에서는 장난감 모형들에 관심을 보이며 하나씩 꺼내어 모래 속에 파묻는 행동이 빈번히 나타났다. 놀이시간도 점차적으로 길어졌으나 작품의 테마나 공간 활용 등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람뿐 아니라 동물과 나무들도 묻거나 넘어뜨리는 행동을 통해 모형들을 자신의 내부적인 세계와 연결을 하기 시작하였다. 말기단계에서는 자아발달의 초기단계로 나아갔으며 작품의 테마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모형의 색깔도 붉은색이 적어지고 다양한 색깔이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적인 혼란과 혼돈을 반영하는 작품을 그렸다. 즉 반응성애착장애유아는 모래상자놀이를 통해 내부에 갇혀있던 침체상태의 자신의 세계가 자아초기상태로 나아가기 시작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과정에서 매우 혼돈스러운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혼돈의 상태에서 반응성애착 장애유아의 공격성이 더욱더 심해졌고 자신의 눈의 동공을 만지며 심하게 비비거나, 혼자 앉아서 눈물을 흘리는 이상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2주 동안의 혼돈과정을 지난 후에는 친구들을 인식하면서 행동을 모방하고 안정되게 교사와 놀이를 시도하는 등 유치원 생활에 안정감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재권과 이민형(2002)이 밝혔듯이 모래상자놀이가 대인관계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와 일치하며 모래상자놀이가 자아기능장애를 지닌

부적응 환자에게 효과적이라는 우종태(1997)의 연구를 입증하였다.

둘째, 사회성발달에서는 전체점수는 14점에서 36점으로 22점이 향상되었으며 영역별로는 친숙한 어른과 상호작용하기는 8점에서 17점으로 9점, 환경과 상호작용하기는 4점에서 8점으로 4점, 그리고 또래와 상호작용은 2점에서 11점으로 9점이 향상되었다. 점수에서는 뚜렷한 향상을 보였으나 여전히 다른 유아와 눈맞춤이나 상호작용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성인이나 또래 친구를 인식하고 놀이에 관심을 보이며 참여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래상자놀이가 유아의 사회성발달에 효과가 있다는 Becker(1996)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모래상자놀이는 언어표현이 어려운 장애아에게 적합하다는 Carmichael(1994)과 Kallf(1966)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반응성애착 장애유아가 모래상자놀이를 통해 모래가 담겨진 상자 안에 다양한 놀이 매체를 통해 유아들의 심리적 갈등, 좌절, 분노, 슬픔, 불안, 기쁨, 즐거움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무의식속에 담겨진 내적세계를 외적세계로 변화시켜 반응성애착 장애유아와 치료자가 함께 공유하면서 반응성애착 장애유아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도록 힘을 키워주는 기법이라는 것을 입증하였다고 본다.

셋째, 모래상자놀이를 실시하기 전 초기에는 반응성애착 장애유아가 친구를 무는 부적절한 대인관계와 타인의 접촉을 두려워하여 깨물거나 회피하는 등 부정적인 친밀감과 같은 전형적인 애착장애아의 특징을 나타냈으나 모래상자놀이를 실시한 후에는 사회성발달과 놀이의 유형에서 성인과 또래를 인식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놀이의 유형에서는 극화놀이에 효과가 있었으며 공격적인 행동으로 부정적인 친밀감을 나타내던 유아의 공격성이 많이 줄어들면서 특정 친구의 행동을 모방하며 곁에 머물러있는 등 병행놀이의 초기형태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교사에게는 깎뽕놀이와 코코코 놀이를 하자고 유도하는 행동을 자주 나타냈으며 보자기위에 풍선 올려놓고 여러 친구들과 어울려 풍선을 튕겨 올리기 등의 놀이에 즐거워하면서 참여를 하는 등 놀이에 참여하는 행동이 보이기 시작한 면에서 소경란(2002)과 양현주(2003)연구에서 제시한 결과와 같았다. 곽희숙(2003)의 연구에서도 모래상자놀이가 불안정한 정서 상태를 지니고 있는 유아가 또래와 교사에 대한 감정표현이 자연스러워지고 놀이 참여에도 효과적이었다고 보고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모래상자놀이는 놀이, 상상력, 공상의 요구를 일깨우며 인간의 영혼, 마음, 지적 능력, 신체를 함께 표현하도록 하는 특성이 있어서 반응성애착 장애유아의 전 존재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래상자놀이는 소품을 간단히 준비할 수 있어 통합교실에서 사용하기 편리할 뿐 아니라 마음 깊은 곳까지 어루만질 수 있는 뛰어난 심리요법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AEPS검사를 사회성발달의 평가도구로만 사용하였으나 앞으로 사회성발달을 위한 교육과정계획에서 어느 특정영역의 보완 및 강화가 필요한가에 대한 장애유아의 개별적인 통합교육계획과 중재내용 개발 뿐 아니라 적합한 교육을 위한 발달 정

보를 제공하는 사정. 평가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반응성애착 장애로 인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공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성이 발달되지 않았으나 모래상자놀이를 통합교육에 적용한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유치원 교사들이 적용할 수 있는 반응성애착 장애유아의 사회성발달, 놀이유형, 그리고 유치원의 적응력의 발달을 위한 모래상자놀이를 활용한 실제적인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치원 통합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모래상자놀이를 활동의 한 영역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다른 영역과 연계를 하는 'kinder therapy'의 개념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AEPS평가와 활동을 통해 반응성애착 장애유아의 사정·평가를 통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맞춤형 중재통합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정, 목적개발, 중재 및 평가 과정을 체계적이며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질적인 중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결과적으로 모래상자놀이를 통해 내면세계를 표출하도록 하며 활동을 통해 질적으로 풍부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반응성애착 장애유아와 비장애 유아들의 협동적 상호작용의 증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참고문헌

- 강정원(2002). 치료놀이를 통한 부적응 행동 유아의 사회적 관계 증진과정.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곽희숙(2003). 정서·행동장애 특성을 보이는 유아에 대한 모래상자놀이 적용 사례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2005). 현대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광웅(1998). 교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 활용방안. 교사를 위한 아동놀이치료 워크숍. 한국놀이치료학회 제1회 놀이치료워크숍.
- 김광웅(2001). 알기 쉬운 놀이치료. 한국놀이치료학회 인터넷 자료.
- Kadudon, H. G & Schaefer, C. E.(2003). 101가지 놀이치료기법. (김광웅, 유미숙역).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 김명희(1999). 아동행동지도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아카데미.
- 김미경(2004). 유아생활지도. 서울: 학지사.
- 김보애(2004). 피학대 청소년의 모래놀이치료 사례연구. 놀이치료연구, 18(1), 37-55.
- 노치현, 황영희(1998). 모래놀이치료 경험과 표현. 서울: 동서 문화원
- 박용옥(2002). 모래놀이가 유치원에 통합된 발달지체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유치원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영란(2003). 알코올 중독자 자녀 심리재활을 위한 모래놀이치료 사례연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경란(2002).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유아에 대한 모래상자놀이 적용 사례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현주(2003). 모래놀이에서 소품 및 물의 제공이 유아의 놀이형태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염숙경(2000). 모래놀이 치료. 서울: 원광아동상담센터.
- 우종태(1997). 간질아동의 모래상자놀이치료. 놀이치료연구, 1, 45-59.
- 이명희(2002). 분리불안형 등교거부아의 모래상자놀이치료. 놀이치료연구, 6(2), 59-73.
- 이숙재(1998). 유아의 상상놀이와 제 변인과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영철외 역(2005). 영유아를 위한 사정, 평가 및 프로그램 체계 AEPS. I,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원저 2002 출판).

- 이영철외 역(2005). 영유아를 위한 사정, 평가 및 프로그램 체계 AEPS. II,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원저 2002 출판).
- 이춘재외 역. (2004) 발달정신 병리학 영기부터 청소년까지. (이춘재외 13인 역). 서울: 박학사
- 정금자(1999). 유아놀이지도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정재권, 이민형(2002). 모래상자놀이가 발달장애아동의 자아개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지체부자유아 교육학회지. 중복지체 부자유아 교육, 39, 189-204.
- 조희순(1993). 유아의 모래놀이에 관한 일 연구-모래상자와 블록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유미, 안선희, 채영순(2001). 유아교육기관에서 모래상자놀이를 통한 부적응아의 치료사례연구. 유아교육연구, 2(1), 141-159.
- Allan, J.(1988). *Inscapes of the child's world: Jungian round. counseling in schools and clinics.* Dalla, TX: Spring.
- Allan, J. & Berry, P.(1987). Sandplay. *Elementary School Guidance & Counseling.* 300-306.
- Amatruda, K. (1998). "Once upon a time." *A presentation given at the sand, sea and psyche: Sand play intensive.* Pacific Grove, CA.
- Ammann, R. (1991). *Sandplay.* Open court publishing co.
- Baker, K. R.(1996). *Let's play outdoors.* Washington, D C.: NAEYC.
- Bradway, K. (1997). *Sand play: silent workshop of the psyche.* New York: Routledge.
- Bricker, D. D.(2002). *Assessment evaluation, and programming system for infant and children(2nd ed.).* Baltimore: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 Carmichael, K. D. (1994). *Sand Play as an elementary school strategy.* Elementary School (3rd ed.).
- Crow, L. D. & Crow, A.(1966). *Creative activity and play of children.* Delmar Publishers Inc.
- De Domenico, G.(1988). *Sand tray world play: A comprehensive guide to the use of the sand tray in psychotherapeutic and transformational settings.* San Francisco: San Francisco University.
- Frost, J. L.(1992). *Play and playscapes.* Albany, New York: Delmar.
- Kalff, D.(1966). The archetype as a healing factor. *Psychology*, 9. 177-184.
- Kim Marievaz(2000 summer). When is a sandplay psycho therapy process completed?, *Action Methods.*
- Lowenfeld, M. (1967). *The world technique.* London: George Allen & Unwin. *Myhome. shinbiro.com*

Oaklander, V. (1988). *Windows to our children*. The Gestalt Journal Press.

Patricia, A.(1999). Play or supervision? Using sandplay with beginning practicum students. *Guidance & Counseling, 14*(4), 3-4.

Shaia, A.(2001). Sandplay's Unitive View. *Journal of Sandplay Therapy, 10*(2), 83-99.

Taylor, B.(1980). *A child goes forth*. 7th ed. Brigham Young University Press.

* 논문접수 2006년 10월 7일 / 1차 심사 2006년 11월 30일 / 2차 심사 2006년 12월 2일

* 김미경: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유아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오레곤주립대학원 교육학부에서 유아교육전공으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총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주요저서로는 유아생활지도, 탐구중심 유아과학교육, 헤드스타트 등이 있다.

* e-mail: kinder999@hanmail.net

Abstract

A Case study of the Sand Play Therapy on the Social Development and Play Development of Child with Reactive Attachment Disorder

Kim, Mi-Kyung*

This study was designed to a case study of the sand play therapy on social development and play development of child with reactive attachment disorder. More specifically, the purposes of the study are three-fold: (1) To analyze the sand play results; (2) To assess the social development are related to the sand play therapy; and (3) To assess the change of play types are related to the sand play therapy. Sand play therapy was conducted on a five weekly basis, in 5-15 minute sessions for one child with reactive attachment disorder.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The child with reactive attachment disorder was most confused and depressed when he began sand play and expressed this as a flood. The sand play allowed for that which has been repressed to be expressed into consciousness, giving "concrete form to states of being that are normally inaccessible", perhaps pre-verbally. Sand play is a therapeutic modality of the greatest power.

secondly, The child with reactive attachment disorder clearly developed social development than the pre sand play therapy.

Thirdly, The child with reactive attachment disorder was slightly changed type of play, and appeared dramatic play.

Therefore, Sand play therapy is recommended for children who present a wide variety of emotionally based difficulties. These include problems relating to peers, problems with appropriate expression of anger, childhood depression, anxiety, adjustment reactions to specific life events.

Key words: sand play therapy, Reactive Attachment Disorder

* Professor, Chongshin University